

1일부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시행... 최대쟁점 '타임오프' 곳곳서 충돌

노동계 파업 결의 등 혼란 가중, KT노동조합 2011년 5월까지 현수준 유지

7월 1일, 노동법 개정으로 인한 전임자임금지급이 시행됐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강행철회 하투를 벌이는 등 강력히 대응해 왔으나 오는 7월 시행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월 25일, 노조전임자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기로 한 사업장이 85곳에 이른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부 이면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7월 1일 시행과 함께 사업장 곳곳에서 파업결의가 속출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7월 1일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시행에 앞서 노동부는 5월 14일(금) 타임오프한도를 고시한 데 이어, 6월 3일 현장에 적용할 매뉴얼을 발표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은 파업과 노조 전임자의 공직선거 출마 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와 무관한 활동은 타임오프 한도 이내라도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유급인정 업무 범위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 업무로 제한했다. 여기에는 규약에 명시된 정기총회·대의원회·임원선거·회계감사와 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이 포함된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노동3권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된 상급단체 활동을 무급으로 규정했고,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대의원대회 참여와 합법적인 파업 참여도 무급으로 판단했다. 복수노조를 앞두고 노조간 타임오프 한도를 나눠 쓰도록 한 것도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지난 5월 11일, 노조전임자의 타임오프 7월 시행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근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5월 1일 법정시한을 넘긴 채 대기업 전임자의 대폭적인 축소방향으로 결정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절차상의 오점을 남겼다. 또한 노동부는 실시행 후보환을 주장하며 서둘러 매뉴얼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도 타임오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최대 쟁점이 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짚어본다.

타임오프(Time-Off)란?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으며 근로 대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2010년 1월 노동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7월부터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게 되면서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타임오프의 유래는 미국·영국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 국가는 노조 간부가 회사 일을 하면서 노사협의 등 노사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따주는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 주요 내용

노조 전임자의 유급근로시간을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한도가 법정시한을 넘긴 5월 1일 새벽 실시행 후보환을 기점으로 대기업 전임자의 대폭적인 축소방향으로 결정, 노동부는 5월 14일 고시에 이어 6월 3일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최소한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체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끈질기게 반발해 왔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개정 노동법 24조 4항으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률이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규정이다. 노동계는 이 조항의 근로자를 전임자로 국한하여 해석해야 하고, 타임오프 한도 적용대상 또한 전임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체계는 근무시간 중에 노조간부가 노조활동을 기획, 지시하거나 대의원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등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대응했다.

특히 6월 3일 발표된 매뉴얼은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전체 조합원 수 기준으로 타임오프한도를 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1년 7월 복수노조 허용을 앞두고 노조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노조와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가 시행되면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공경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매뉴얼은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짚고 있다.

한편, 2010년 1월 1일 이전 이미 체결되어 유효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유효기간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09년 5월 단협을 체결한 KT노동조합은 2011년 5월까지 유효하다.

2010. 1. 1 노동법 개정 중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 시행시기 : 2010년 7월 1일 시행
-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도입
 - 면제 범위 :
 - △ 사용자와의 협의·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 유지·관리업무
 - 전임자급여지급 및 초과임금 요구 목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 초과임금 요구 및 수행시 노조원 처벌조항 삭제
- 타임오프 한도 결정
 - 노동부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3년마다 제정의
 - 구성 : 노동계, 경영계, 정부 추천 각 5인씩
- 단체협약과의 관계
 - 2010년 1월 1일 이전 체결된 단협 유효기간까지 효력 인정

타임오프 도입 영향

- 한도 및 전임자수를 놓고 갈등
 - 한도 및 전임자수는 쟁의행위 사정 제외
 - 임금지급 시 노조원 처벌조항 삭제 성과(단, 사용자 처벌조항은 유지)

※ KT노동조합, 2009년 5월 단협 체결로 2011년 5월까지 현 수준 유지 가능

타임오프한도 매뉴얼 어떤 내용 담았나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수 300명 미만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수 300명 이상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 28,000시간+매 3,000명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수 300명 이상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규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함 (출처 : 노동부)

노동부가 2010년 6월 3일 발표한 매뉴얼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상한선 적용 구간을 총 11개로 나뉘었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수를 늘려가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증가폭을 심히 제한했다. 2012년 6월말까지는 2만8,000시간에 매 3,000명 마다 200시간씩 추가돼 24명을 둘 수 있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는 최대 3만6,000시간만 인정받아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타임오프 총량을 나눠 쓸 수 있는 전체 전임 활동가 숫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 수의 3배,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배로 제한했다. 노동부는 고시에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해당 기업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노사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수 49명 이하인 경우는 연간 1000시간 이하'처럼 이번엔 고시된 사업장 규모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라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고시한 타임오프는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노조활동을 정부가 개입통제하고,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뒤 활동을 봉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OECD 노조자문위 툴란트 슈나이트 선임정책연구원은 "한국에서 도입한 타임오프 제도는 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제적 기준은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는 노사 자율 협상에 맡긴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매뉴얼에 나타난 타임오프한도 적용 기준

- 노조전임자 : 노조전임자는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사용자로부터 급여지급이 금지됨. 업무범위와 인원은 노사자율로 정할 수 있으나 급여는 노조 자체 재정에서 부담해야 함

- 근로시간면제자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가능.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노조법 제24조 제4항). 정해진 시간 내에서만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로 해당 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가능.

노조 전임자 & 근로시간 면제자

구분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자
근거	노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노조법 제24조 제4항
업무범위	노동조합 업무로서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노조법 제2장 제3절 규정 에 의한 노동조합 관리 업무 및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급여지급	무급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처리 가능
인원수	노사가 협의 결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가 결정

노동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호해야"

타임오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다. 법정시한을 넘겨 의결하는 등 노동계는 노조법에 대한 개정을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구축된 국내 노동운동시스템의 변화와 해체의도로 바라보고 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근본적 문제는 노사 자율로 정할 노조 전임자 급여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데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반대로 노조활동에 제약을 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타임오프 한도, 전임자수, 상급단체 파견 등에 있어 노사 협조주의가 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고 받기식 노사관계가 형성된다면 노동운동의 폐해가 클 것이다. 특히 복수노조를 앞두고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타임오프한도를 나눠 써야 하는 것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 온다. 이는 복수노조 취지에 어긋나며 노동조합 활동 축소의로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을 수 차례 권고한 바 있다. 단체교섭 제약과 노조 전임자 축소는 노조조직력을 더욱 추락시키고 노조의 근로자 대변기능을 크게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제도적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을 이유로 사용자측이 단체교섭과정에서 전임자 자체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타임오프제를 구실로 전임자의 노조활동에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노동조합은 2011년 6월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7월 복수노조 시행이 맞물려 보다 전문적인 고민과 대처가 요구된다.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

- 노조법상 단체교섭 업무
- 근감법상 노사협의의 업무
- 근감법상 고충처리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대표로서 동의, 인회, 의견청취 업무
-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업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 업무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 주관 위탁교육 등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
- 사용자의 위탁에 의한 조합원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의 "유급인정 범위"

- 사용자와의 협의나 협의·교섭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사업장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해야 함
- 회의참석 등 법에 정해진 소정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임
- 파업, 공직출마 등은 유급처리를 받을 수 없음

제3차 전국지방본부 위원장회의 열려

노사정책협의회 현안사항 등 집중 논의



노동조합은 6월 21일(월) 2010년 제3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대구지방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에 열렸던 제1차 노사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설명하고,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김구현 위원장은 북대구지부 및 대구 NSC지부, 수성지부 등을 순회하여 조합원의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일선에서 고생하는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부산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 운영

노동조합, 현장체험으로 조합원 고충 개선 노력



노동조합은 지난 7일(월)부터 9일(수)까지 부산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정책기획실 중앙상무집행위원 전원은 동부산NSC·부산법 인사업단·청원·서부산NSC·경남부산 지부 등을 돌며, 조합원 간담회 및 케이블 포스터작업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시험실 집중화, 출장비 고충, 단말기 보급 지연 및 A/S관련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노사합동, 산업재해 예방과 대처를 위한 산업안전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재해발생 위험성 및 예방법 교육



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6월 21일(월) 서부지방본부에서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지부장) 및 각 팀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노사 합동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김용규 산업안전교육장의 '국민 4대 보험'의 개요와 '산재보험'에 대한 강의에 이어, '유형별 중대재해 사고사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용규 국장은 "안전교육은 실제 작업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사례 위주로 실시돼 근로자의 작업 중 안전사고예방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산업안전교육은 서부지방본부를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각 지방본부에서 차례대로 실시될 계획이다.

동계유니폼 품평회 개최 및 지급계획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0년에 지급할 동계유니폼에 대한 최종 품평회를 지난 6월 29일(화) 개최하고 이를 통해 품목별 1개씩의 제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동계유니폼 개선 방향은 디자인과 편의성이 강조되며, 현장조합원 선호도 조사 및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2010년 동계유니폼 지급계획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제작품목(4종) : 근무복, 작업복, 방한복, 창구 여직원복
2. 추진일정
 - 디자인 : 2010.5.28 ~ 6.20
 - 품평회 : 2010.6.21 ~ 6.29
 - 디자인 개선 : 2010.6.29 ~ 7.10
 - 월당생산 및 봉제 : 2010.7.1 ~ 9월말
 - 착용 : 2010.10.1 ~

소통과 변화, 조합원과 국민 위한 힘찬 걸음



독창적 HOST운동 · 신노사문화 선언하고 장학사업, 무료인터넷교육 등 전개

2010년 KT노동조합은 28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일대 변화를 시도했다.

2009년 '현장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기조로 출범한 10대 집행부는 김구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인 노동운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해 왔다. 10대 집행부는 출범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일변도 성원의 상급단체를 탈퇴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며 조합원과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칠 것을 요구 받아왔다. 노동조합은 지난해 KTF노동조합과 합병하고 상급단체를 탈퇴한 뒤 새로운 노동운동 전략 수립을 위해 박차를 가해 왔다. 이에 중앙상무집행위원 내부토론 및 지방본부위원장 회의 등을 거쳐 이에 2010년 3월 5일 KT노동조합만의 독창적 HOST운동을 선언했고, 동시에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식도 가졌다. HOST 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를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운동 정신을 함축했다.

노동조합은 2010년 상반기에 호스트운동의 일환으로 무료인터넷교육, 장학사업, 올레 한마당 잔치 등을 진행, 조합원과 국민을 향한 노동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조합원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은 물론, 안팎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2010년 상반기 주요 활동을 소개한다.

2010년 지부대회 개최

■ 날짜 | 2월 10일(수) ■ 장소 | 전국 지부별 개최

노동조합은 2월 10일(수) 전국적으로 지부대회를 열고, 각 지부의 2009년 활동사항과 2010년 활동계획을 해당 소속 조합원에게 보고했다. 이어 2010년 노동조합의 중요인 의 사결정에 참여할 지방본부대의원 선거를 진행, 지방본부대의원 선출을 완료 했다. 한편, 이날 사고지부에서는 오늘 지부대회를 통해 지부장 보궐선거 투표를 진행, 총 28인의 지부장을 선출했다.



2010년 지방본부대의원대회 개최

■ 날짜 | 2월 24일(수)~25일(목) ■ 장소 | 전국 지방본부별 개최

올해 지방본부대의원대회에서는 △2009년 활동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와 결산 △2010년 사업계획 심의·의결 등을 진행했으며, 고용안정과 노동자의 권리수호를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펼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규약 제24조에 따라 지방본부대의원 중에서 전국대의원을 선출했다.



노동조합, 3·8여성의 날 기념대회 개최

■ 날짜 | 3월 5일(금)~6일(토) ■ 장소 |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올해 여성의 날 기념 행사에는 중앙본부 과감속 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전국지방본부 여성국장 및 여성대의원, 여성지부장 등 여성간부 총 35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들은 1박2일간 여성리더십과 법률교육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연 여성단체 연합의 102주년 기념행사에 합류했다.



노사 YOUTH 장학사업 장학증서 전달식

■ 날짜 | 4월 6일(화)

노동조합은 4월 1일(목) HOST 운동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교생을 위한 '노사 YOUTH 장학사업' 대상자로 210명의 고교생을 선발했다. 이어 4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분당 KT본사에서 'KT노사 YOUTH 장학사업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졸업 때까지 수업을 지원받게 될 210명의 고교생들을 대표해 18명의 장학사와 학부모가 참석했으며, 김구현 위원장과 이석재 회장 등이 함께 했다.



제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

■ 날짜 | 5월 6일(목)~7일(금) ■ 장소 | 지리산수련관, 인근 구레 섬진강변

노동조합은 지리산수련관 인근 구레 섬진강변에서 '제7회 위원장기 전국조합간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500여 조합간부들의 흥겨운 열정으로 가득찬 이번 축구대회에서 전북지방본부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500m계주에서는 강남지방본부가, 줄다리기에는 부산지방본부가 각각 우승을 했다.



노동조합 창립 28주년 기념식 및 열사 합동추모제

■ 날짜 | 1월 6일(수) ■ 장소 |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

전국지방본부 위원장들을 비롯한 조합간부들과 열사 유가족, KT그룹노조 집행위원장 등 600여명이 참석해 열사들의 뜻을 추모했다. 행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고 김낙성 동지, 고 김양중 동지, 고 윤준상 동지 등 5명의 열사에 대해 "이들의 헌신적 인 삶과 투쟁이 있었기에 민주노조의 역사가 개척될 수 있었다"고 추모했다.



KT연구개발센터에 꿈나무어린이집 개원

■ 날짜 | 3월 4일(목) ■ 장소 |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

10대 집행부 공약 사항 가운데 하나인 'KT 꿈나무 어린이집'이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도 들어섰다. 조합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인 꿈나무 어린이집이 수내, 광주, 부산, 목동 등에 이어 8번째로 개원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영유아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중고생 자녀 무료 인터넷 교육 시작

■ 수강 개시 | 2010년 4월 5일(금)부터

■ 대상 | 전 조합원 중고등학생 자녀(전 임직원 인사상 가족 등재자에 한함)
■ 목적 | 우수업체 무료 인터넷 교육을 통한 조합원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 접수기간 | 3월 22일(월) ~ 5월 31일(월)
■ 이용기간 | 4월 5일(월)부터 ~ 종학까지는 졸업, 고등학교는 대학입시까지
■ 콘텐츠 제공 | 종학상 '7wise 홈스터디', '고등학생_KT edu' 노동조합은 3월 5일 선언한 'HOST운동'의 일환으로 조합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무료 인터넷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우수한 콘텐츠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조합원 가정의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

■ 날짜 | 5월 20일(목) ■ 장소 | 대전 KT인재개발원

노동조합과 회사는 5월 20일(목)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KT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노사화합 올레 한마당 잔치는 노동조합의 호스트 운동과 노사상생프로그램의 하나로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및 임직원 5,0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방본부별 장기장, 족구, 배구, 랭옴추첨, 시상, KBS 열린 음악회 축하 순으로 구성했다.



2010년 신입사원 대상 특강

■ 날짜 | 1월 25일(월) ■ 장소 | 원주 리더십아카데미

신입사원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구현 위원장은 KT노동조합의 역사와 조직현황, 운영방식, 그리고 10대 집행부 핵심공약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앞으로 헌업 배치 후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언제 든지 노동조합 지원을 찾아 도움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원규 정책기획실장과 한호석 복지국장, 하진 교육선전실장이 차례로 강사로 나서 ▲노동자의 자세와 노동조합의 역할 ▲KT복지제도 현황 ▲KT노동운동의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호스트운동 및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식 개최

■ 날짜 | 3월 5일(금) ■ 장소 | 서초동 KT 올레캠퍼스

KT노동조합은 3월 5일(금) 상급단체 탈퇴 이후 펼쳐질 신노동운동 전략을 발표하고, KT만의 독창적인 노동운동 실현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날 노동조합이 서초동 올레캠퍼스에서 발표한 신노동운동 전략은 'HOST운동'과 '신노사문화 공동선언'으로 압축된다. 'HOST운동'은 Harmony(화합), Originality(창조), Share(나눔), Transparency(투명)를 결합한 약어로 KT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새로운 운동을 나타낸다.



KTTU 홈페이지 개편

■ 날짜 | 4월 5일(월)

노동조합은 4월 5일(월) 참여와 소통의 공간을 강조한 새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새로운 KTTU 홈페이지는 ▲커뮤니티 강화 ▲통합검색 기능 ▲KTTU 블로그 서비스 ▲일몰제 ▲KT YOUTH ▲여성전문 상담센터 등의 메뉴가 눈에 띈다. 특히 기존 지방본부 홈페이지를 블로그로 변경, 해당 지방본부 소식이 새롭게 포스팅 되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지방본부 소식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동정책실 운영

■ 날짜 | 6월 7일(월)

노동조합은 6월 7일(월)부터 9월(수)까지 부산지방본부에서 이동정책실을 운영했다. 정책기획실 중앙상무집행위원 전원은 남부단·동부단NSC·부산·경남·부산·울산·대구·충청·부산·NSC·경남·부산 등을 돌며, 조합원 간담회 및 케이를 포괄적인 등을 지원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시험실 집중화, 출장비 고충, 단말기 보급지원 및 A/S관련 문제들이 집중 논의됐다.



조합 일상활동

노동조합은 1월 11일(월) 오전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2010년 첫 중앙상무집행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다졌다. 이처럼 노동조합은 매월 중앙상무집행위원 월례회의,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전국 조직국장회의 등을 개최했으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위원회의를 가동, 노동조합의 의견이 하나로 견지될 수 있도록 힘썼다. 특히 김구현 위원장은 매달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노동조합의 상시 주요 활동을 짚어본다.

위원장 현장 순회



■ 노동조합 강원 북쪽지역 순회

날짜 | 3월 10일(수)

장소 | 강원지방본부 속초·강릉·강릉 NSC지부

노동조합은 3월 10일(수) 북쪽 지역 업무 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강원지방본부 속초·강릉·강릉NSC지부를 순회하고 해당 조합원들을 위로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현장 순회 후 강원지역 지부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자와 고객서비스 애로사항을 전달받고 '특별 등 지원제에 발생 시 조합원의 고충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쓸 것'을 강조하며, '현장업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부지방본부 현장 순회

날짜 | 3월 16일(화)

장소 | 서부지방본부 송도·연수지부

김구현 위원장은 3월 10일 강원지역 현장 방문 이후 계속해서 조합원과의 거리를 줄이고, 이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월 16일(화) 서부지방본부 소속 송도지부와 연수지부를 각각 방문했다. 또한, 2010년 KT노동조합 HOST운동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노동조합도 조합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되는 조합으로 만들자며 새로운 노동운동을 함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백령지부 위로방문

날짜 | 5월 26일(수)~27일(목)

장소 |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은 5월 26일(수)~27일(목) 1박 2일간 윤우원 사무처장, 장인태 조직처장과 함께 노동조합 서부지방본부 백령지부를 위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구현 위원장은 문경노 서부지방본부 위원장과 심홍신 백령지부장은 "노동조합은 그 동안 소문으로 무성하던 네트워크 인력이동 문제와 시험실 집중화 문제를 집중 성토했으며, 다음 회의까지 항목별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10년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 1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날짜 | 1월 27일(수)

장소 | 제주지방본부

지부대회 공고 및 보궐선거 지침 등 확정

■ 2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날짜 | 3월 8일(월)

장소 | 강남지방본부

전국대의원대회 일정 및 계획 공유, 호스트운동 프로그램 논의

■ 3차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날짜 | 6월 21일(월)~22일(화)

장소 | 대구지방본부



노사정책협의회 안전 등 집중 논의

노사정책협의회

■ 제 1차 노사정책협의회

날짜 | 6월 15일(화) 오후 2시

장소 | 분당 본사 5층 회의실

노동조합은 200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김재희 회계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지난 회기에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던 증명서류 미비 부문이 눈에 띄게 시정되어 있어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10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히 회계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권고사항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철저히 정비해 나가, 조합이 집행에 있어 한 치의 낭비나 착오가 없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제 2차 노사정책협의회

날짜 | 6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 분당 본사 11층 회의실

노동조합은 1차 회의에서 회사에 요구한 자료를 받아 검토한 후 수도권 및 경기, 강원지역 NSC지부를 순회하며 현장의 견해를 수렴한 뒤 입장을 정리, 이를 토대로 협의회의를 진행했다.

제 3차 노사정책협의회

날짜 | 6월 28일(월) 오전 10시

장소 | 분당 본사 11층 회의실

후분부 고교지원관리실 집중화 현안에 대해 노동조합은 우선선 보다 유인실에 대한 장점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집중실 또한 42개소보다 더 많은 집중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트워크부문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미묘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노사는 실무진 구성에 실무협의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회계감사

■ 2009 하반기 노동조합 회계감사 실시

날짜 | 3월 8일(월)~12일(금)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노동조합은 2009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김재희 회계 대표위원은 총평을 통해 "지난 회기에 권고사항으로 지적했던 증명서류 미비 부문이 눈에 띄게 시정되어 있어 감사하다"고 전달했다. 김구현 위원장은 "10대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철저히 회계를 진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권고사항은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철저히 정비해 나가, 조합이 집행에 있어 한 치의 낭비나 착오가 없도록 애쓰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날짜 | 2월 1일(월) ~ 10일(수)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사고지부 대표 보궐선거 및 지방본부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2월 1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소집해 활동했다. 중앙선관위는 전일 대표위원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대표위원에 장화영 위원을 선임 대표위원으로 선출했다.

연대활동

■ 제 8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 참가

주제 | 비정규직

일정 | 4월 26일(월)~29일(목)

장소 | 대만 화롄

참석 | KT노동조합 김구현 위원장 및 조합간부, 일본 NTT노동조합 가토 위원장 및 조합간부,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주진행 위원장과 조합간부 및 UNI-Apro사 무극장 등



제8회 동아시아 통신노동조합 포럼이 '비정규직'을 주제로 4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대만 화롄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 KT노동조합을 비롯해 일본 NTT노동조합, 대만 중화통신노동조합 위원장과 조합간부 및 UNI-Apro사 무극장 등이 참가했으며, 조합간부들은 각각

의 사례와 해결방안 등을 공유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포럼에 참가한 김구현 위원장은 "KT의 경우 비정규직 문제에서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비취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동아시아 노동자 모두의 미래 고용환경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각각의 비정규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아 성명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동아시아 포럼은 2003년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으며 한국의 KT노동조합, 일본의 NTT노동조합, 대만의 중화통신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시아 최대의 통신노동조합 포럼이다.

UNI-KLC 집행위원회

날짜 | 3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참가 | UNI 최정식 사무총장과 김영성 회계감사, 정보통신노련 이종석 상임부위원장, 사무금융노련 이두현 부위원장, 언론노조 이명순 조직쟁의실 부국장, 민간서비노조 정민정 여성국장, KT노동조합 차원규 정책기획실장 등

UNI-KLC 집행위원회 회의가 3월 24일(수) 오전 11시 KT노동조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각 노조의 현황보고 후 언론노조 김순기 수석부위원장을 UNI-KLC 신임집행위원장으로 선임했다.

'UNI 텔레콤 월드 회의' 참가

날짜 | 5월 10일(월) ~ 12일(수)

장소 | 스위스 니옹

참가 | 한국·미국·영국·일본·대만·프랑스 등 24개국 통신노동조합

노동조합 국제연대가 지난 1년간 초국적

통신자본에 맞서 펼친 활동보고와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KT그룹노조협의회 사랑과 나눔 행사 개최

날짜 | 6월 3일(목)

장소 | 서울역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6월 3일(목)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운터'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UNI-APRO 사무총장 노동조합 방문

날짜 | 6월 29일(화)

장소 | 노동조합 중앙본부

적극적인 연대와 참여 당부

홍보활동

■ 노동조합 책자형 소식지 '뽕' 창간

창간 | 6월 14일(월)

노동조합은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전달에 그쳤던 기존 노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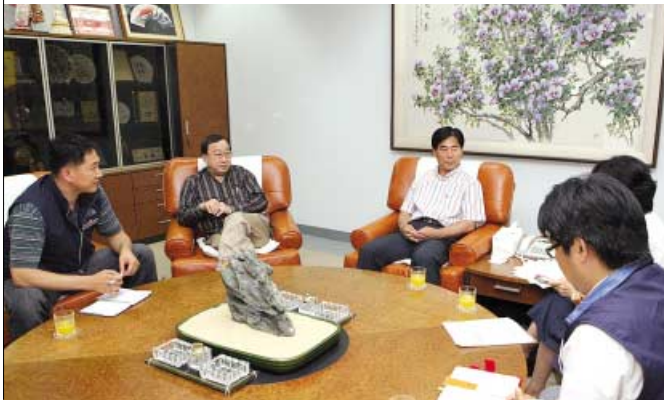
수차례 논의 끝에 노보를 격월간 책자형으로 제작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중매이 되도록 했으며, 지난 6월 드디어 창간호를 내놓았다.

■ '뽕' 창간호

노동조합은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전달에 그쳤던 기존 노보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심을 해 왔다.

수차례 논의 끝에 노보를 격월간 책자형으로 제작해 조합원들의 자유롭고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의 매중매이 되도록 했으며, 지난 6월 드디어 창간호를 내놓았다.

UNI-APRO 사무총장 노동조합 방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UNI-APRO '크리스토퍼 응' 사무총장은 6월 29일(화) KT노동조합을 방문,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운동이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응 사무총장은 한국노동운동 중심에서 있는 KT노동조합의 호스트 운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이 아시아의 리더십 중심으로 역할이 필요하며 일본 나가사키에서 올해 11월에 개최될 세계대회 참여를 부탁했다.

※ UNI (Union Network International, 세계 최대의 산업별 노동조합연맹체) : UNI는 전 세계 140개국 900여개 노조 1,500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조연합체로서, 2000년 1월 기존 4개의 국제 산별연합체인 FIET(금속 및 사무직), ICE(신 및 통신), MEDIA(미디어 엔터테인먼트), G(그래픽 출판) 노동조합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통합 출범한 단체이다.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 사랑과 나눔 행사 열어



KT그룹노동조합협의회(이하 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6월 3일(목)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인 '따스한 채움터'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그룹노동조합협의회 각 단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그룹노동조합협의회집행위원장, 집행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약 4백여 명의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생활필수품(숙우유, 쌀 등)을 전달하고 따뜻한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그룹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인 김구현 위원장은 '밥퍼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조금이나마 희망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노동운동의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7월 산업재해 상담사례 : 산재 요양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문제

질문의 내용 작년 산재사고를 당해 산재승인을 받아 2009. 9. 23. 부터 2010. 5. 31. 까지 치료를 받고난 후 산재치료가 종결되어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회사의 근무시간은 2008년부터 주 40시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들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하고 있으며, 올해 저는 입사 5년차입니다. 제 경우에 작년과 올해 산재 요양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회사에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몇일인가요?

답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일정 기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산재 요양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기준은 산재 요양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1년)의 일부라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나, 산재 요양기간이 연차휴가 산정기간(1년) 전부에 해당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5.07.14. 근로기준과-3733 참조).

귀하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이 작년(2009년도)과 올해(2010년도)에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각각 걸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도 = 입사 4년차 16일
2010년도 = 입사 5년차 17일

따라서 귀하는 올해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도에 사업장 복귀 후 산재요양 기간을 포함하여 근무일의 8월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내년에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제공 : 노무법인 베스트솔루션)

2010 하계휴양소 운영 및 이용안내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2010년 하계 휴양시설을 오는 7월 23일(금)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0년 7월 23일(금) ~ 8월 22일(일) (30박 31일)
- 운영시설 | 입차 368실
- ※ 자세한 휴양소 이용 안내는 홈페이지(kttu.or.kr) → 자료실 → 문서·정책을 참조

2010년 하계 휴양소 시설 및 운영기관 현황

휴양소명	지역명	입소가능인원	연락처	휴양소명	지역명	입소가능인원	연락처
에덴밸리	경남 양산	4인	055) 379-8000	금호화수리조트	전남 화순	4-8인	061) 372-8000
한솔 오크밸리	강원 원주	4인	033) 769-7501	꿈꾸는 새재	경북 문경	4-5인	054) 571-7777
동해콘도	강원 속초	4인	033) 635-9631-5	썬셋펜션	충남 태안	4인	041) 675-6567
청평풍림리조트	경기 가평	5인	031) 584-9380	마리솔펜션	충남 태안	5-7인	041) 672-3222
메이힐스리조트	강원 정선	5인	033) 590-1000	유로빌리지36	전북 군산	7-8인	063) 471-1112
영랑호리조트	강원 속초	5인	033) 633-0001	금호설악리조트	강원 속초	5-7인	033) 636-8000
현대성우리조트	강원 횡성	5인	033) 340-3000	청풍리조트	충북 제천	4-5인	043) 640-7000
노보텔엠베서디호텔	부산 해운대	4인	051) 743-1234	그랜드호텔		3-4인	064) 747-4900
해운대그랜드호텔	부산 해운대	4인	051) 740-0555-7	발리리조트	제주	4-5인	064) 796-8231-5
삼천포남일대리조트	경남 사천	4인	055) 832-9800	오션스위트호텔		2-3인	064) 1577-9766
경주현대호텔	경북 경주	3-4인	054) 779-7200-2			4-5인	
보성다비치콘도	전남 보성	4인	061) 850-1100				

"휴양소 부근, 가 볼 만한 관광지 어디가 좋을까?"

강원·설악권

- 금호설악리조트(속초) <http://www.kumhoresort.co.kr>
- 동해콘도(속초) <http://www.donghaecondo.co.kr>
- 영랑호리조트(속초) <http://www.yrhresort.co.kr>
- 한솔 오크밸리(원주) <http://www.oakvalley.co.kr>
- 메이힐스리조트(정선) <http://www.mayhills.co.kr>
- 현대성우리조트(횡성) <http://www.hdsungwoo.co.kr>

내설악의 자연과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백담마을'

내설악의 백담사 인근에 있는 백담마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민해 한용운 의 승려 생활이 시작된 곳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배 생활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한 이곳은 설악의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면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산림욕으로 달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다. 백담마을의 매력은 무엇보다 민해 박물관에서의 문화 체험을 비롯, 병박타기, 래프팅,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등 각종 레포츠 역시 즐길 수 있다는 점.

부서지는 파도, 투영에 가까운 바다, 물놀이가 즐거운 '경포대'

경포대는 90여 개의 해수욕장이 밀집해 있는, 동해안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 중 하나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사시절 광고투명한 경포해수욕장의 비단물은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백사장 역시 피부에 닿는 감촉이 부드러워 맨발로 다녀도 좋다. 수심은 1-2m 정도며 경사가 완만해 물놀이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백사장 뒤로는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며 이들 위로 솟아오르는 일출과 월출이 장관을 연출한다.

Tip: 호감을 자극하는 '성계문화회'

6월 말부터 8월까지가 제철인 성계문화회는 여름철 동해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다. 밤들처럼 생긴 껍질 안쪽에 가득 차 있는 노란 알이 입 안에서 사르르 녹아 내리는 성계는 맛은 밤과 닮아서도 금방 생각나게 만든다.

경기권

- 청평풍림리조트(가평) <http://www.poonglimresort.co.kr>

특별하고도 다양한 체험 '나미나라'

10년 전만해도 서울 근교의 그렁그렁 유원지에 불과했던 남이섬이 180도의 번신 끝에 '나미나라' 라는 브랜드로 공화국을 선포하고 한류 관광 1번지이자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탈바꿈했다. 지난해 남이섬 입장객 수는 약 200만 명. 이 중에서 외국인은 25만 명이 넘는다. 야외 수영장인 워터스테이지, 하늘 열차를 비롯한 각종 놀이기구와 다양한 이벤트, 전시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열린다.

한 폭의 여름 산수화, '용문산'

경기도에서 최악산, 명지산에 이은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정상은 입산통제 지역으로 정상을 우회하는 등산로가 이용되고 있다. 산행은 보통 용문사 절 왼쪽 계곡길을 따라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

면 능선머리턱에 이르며, 가장 긴 제 3코스는 용천리 사나시를 산행 출발점으로 삼는다.

충청권

- 썬셋펜션(태안) <http://sunsetpension.net>
- 청풍리조트(제천) <http://www.cheongpungresort.co.kr>
- 마리솔펜션(태안) <http://www.pensionmarisol.com>

추억 어린 음식기행 '금강모치마을'

충남 영동의 금강모치마을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찹쌀떡(모치)과 깊은 인연이 있다. 비룡산과 갈기산에서 생산되는 금강포도는 물론, 특별한 날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찹쌀떡 맛이 일품이다. 이밖에 포도로 만들 수 있는 요리 체험과 닭서리 체험, 구루마 타기, 포도, 블루베리 따기 등 다양한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다. 특히 마을 산책, 마을의 전통 깊은 상황에서 소원 빌기 같은 프로그램은 도시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한다.

한국의 하동베이 '충주호'

충주호는 충주시 증민동과 동량면사이의 계곡을 막아 만든 호수로 우리나라 호수 중 가장 크고 깨끗한 다목적 호수다. 날씨가 좋을 때면 충주호의 수면이 녹색을 띠며 마치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보는 듯 하다. 또한 주변에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 청풍 문화재단지, 단양 8경, 고수동굴, 구인사, 노동동굴 등 수많은 관광자원들이 펼쳐져 있으며, 충주호 뱃길 130리는 옥송봉, 구암봉, 초가바위, 두무산 등을 구비 돌아 정회 나무까지 운행되고 있다.

영남권

- 에덴밸리(양산) <http://www.edenvalley.co.kr>
- 노보텔엠베서디호텔(해운대) <http://www.novotelbusan.com>
- 그랜드호텔(해운대) <http://www.grandhotel.co.kr>
- 삼천포남일대리조트 <http://www.namiilte.com>
- 경주현대호텔(경주) <http://www.hyundaihotel.com/gyeongju>
- 꿈꾸는 새재(문경) <http://www.dreamsaejae.com>

수려한 산세에 둘러 쌓인 웰빙의 명소 '불정자연휴양림'

숲이 예쁘고 공기가 맑은 길로도 유명한 이곳은 숲 해설가들과 함께 무료 숲 해설을 들으며 삼림욕을 할 수 있고, 깨끗한 환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 하며 휴양림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불정자연휴양림은 또한 아열대, 산책로, 잔디광장,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두루 갖춰놓아 여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국 8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 '해운대 해수욕장'

신라말기 학자 해운 최치원 선생의 호를 따 이름 지은 해운대의 타원형 백사장은 1.6km로 국내 최대 길이를 자랑한다. 주변에 동백섬, 해운대온천, 달맞이고개 등이 있으며 편리한 교통과 숙박, 휴양시설이 갖춰져 있다. 해운대관광 유람선은 승정, 미포동백섬에 도착장을 두고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 동백섬, 이기대, 신선대, 오륙도를 일주하는 코스로 소요시간은 1시간 가량이다.

호남권

- 유로빌리지36(군산) <http://www.gunsanvill.co.kr>
- 금호리조트(화순) <http://www.kumhoresort.co.kr>
- 다비치콘도(보성) <http://www.dabeach.co.kr>

광활한 녹색의 대지 '보성차밭'

150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차밭이다. 보성은 원래부터 한국차의 명산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 지리적으로 볼 때 영천저수지가 마을 바로 앞에 있어 차밭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정수 역할을 하고 있고, 안개가 많이 끼는 기후 덕분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어 차 재배에 아주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내륙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차의 품격도 국내 제일을 자랑한다.

아련한 추억과 함께 달리는 '섬진강가차마을'

'태극기 휘날리며'를 비롯한 영화와 드라마 촬영의 명소인 섬진강가차마을을 여러모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다. 심청이아기의 모델로 추정되는 '원홍장실화'를 테마로 조성된 한국마을은 가장 큰 볼거리이며, 또 은어요리와 참깨탕 맛이 일품인 압록 유원지, 흑 돼지 불고기의 옛 맛을 간직한 석곡 등에서 쉬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제주권

- 오션스위트호텔 <http://www.oceansuites.kr>
- 발리리조트 <http://www.jejubai.com>
- 그랜드호텔 <http://www.oraresort.com>

거대한 규모의 인공정원 '여미지 식물원'

중문관광단지내에 있는 제주관광식물원 여미지는 남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동양 제일의 식물원으로 부지면적이 3만 4천여평에 달한다. 3천 8백평 규모의 온실 속에는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는 화점원을 비롯해 수생식물원, 생태원, 열대과수원, 다육식물원, 중앙전망대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멸종위기의 야생식물은 물론 제주도 자생 식물과 한국, 일본, 이태리, 프랑스의 특색 있는 정원을 꾸며놓은 민속정원이 있다.

시리도록 환상적인 바다와 정경 '우도'

우도는 제주의 섬 중 추자도와 함께 가장 큰 섬으로, 마치 소가 드러누웠거나 머리를 내민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산포에서 북동쪽으로 3.8km 떨어진 섬이며, 성산항에서 15분이면 갈 수 있다. 우도항에 내리면 제일 먼저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우도봉이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눈부시게 빛나는 백사장, 더불어 저 멀리 성산일출봉의 정경 모두가 한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도에는 바다동물과 갖가지 산호와 고둥껍질이 쌓여 만들어진 산호 해수욕장이 있으며, 밤바다는 고기잡이 배들이 환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장관을 이루고 있어 한 번 와 본 관광객이라면 우도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

가족과 함께한 여름휴가 사진 컨테스트

노동조합은 해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하계 휴양소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기록이나 사진을 이미 일로 보내 주세요. 채택된 글과 사진은 노보나 뷰를 통해 소개하며, 정성을 보내주시 조합원께서는 소정의 선물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KT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강할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 : 8월 25일(수)
보내실 곳 : main@paran.com
문의 : 031)727-2852

